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오전에는 미 대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 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# [미국 경제]

- WSJ: 9월 인플레이 둔화세 예상보다 약해...CPI 연 2.4% 상승
- Bloomberg: 시카고 연준 총재, "CPI 보고서에 우려하지 않는다"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간 최고치 상승...허리케인 Helene 탓도
- WSJ: 9월 연준 의사록, '금리 인하 폭으로 의견차 보여'

#### [미국 대선]

- Bloomberg: 트럼프, '해외 거주 미국인에 소득세 철폐' 약속

#### [뉴욕시]

- Bloomberg: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, 천천히 내린다

#### [미국 생활]

- Bloomberg: 허리케인 '밀턴' 플로리다 상륙...심각한 피해 3등급
- CNBC: 내년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, 2.5% 오른다

#### [글로벌 경제]

- Bloomberg: WTO "리스크 증가로 상품 무역 전망 불확실해"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NYT: 아마존은 배달 기사를 직원으로 대우해야 할 수도
- CNBC: 아마존, Whole Foods에서 로봇 창고 추가 테스트 실시
- Bloomberg: 삼성, 대학생들을 위한 학술용 AI 지원
- WSJ: 맥도날드, 빅맥에 치킨 출시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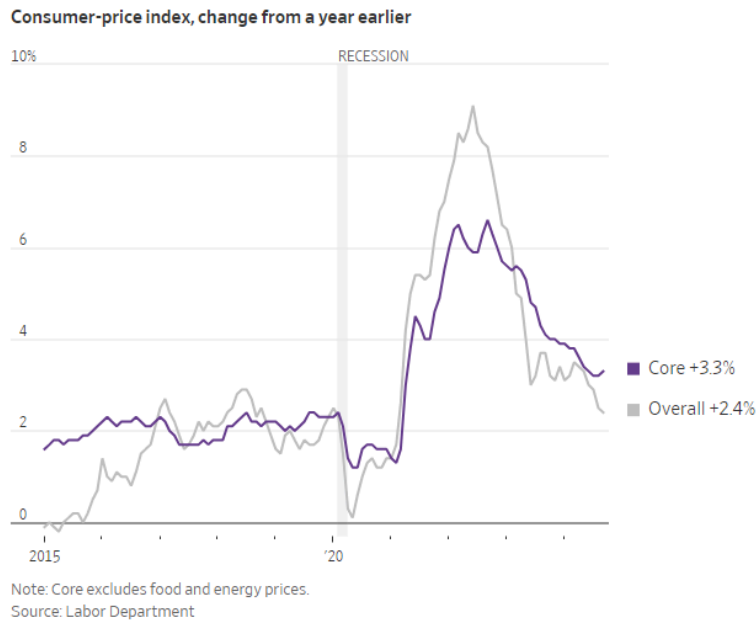
#### [미국 경제]

#### WSJ: Inflation Cooled in September; CPI Up 2.4% on Year

#### 9월 인플레이 둔화세 예상보다 약해...CPI 연 2.4% 상승

- 미 인플레이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작년 동월에 비해 2.4% 증가했다. 8월에는 연간 2.5% 상승했다. 월스트리트 전문가 9월 예상치는 2.3%였다.
-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핵심 물가는 지난 12개월보다 3.3% 상승해 8월의 3.2%보다 약간 높았다.

- 연준은 오늘 보고서와 내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감안해 11월 금리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.



WSJ 기사

## Bloomberg: Fed's Goolsbee Shrugs Off CPI Report, Points to Inflation Trend

시카고 연준 총재, "CPI 보고서에 우려하지 않는다"

- 시카고 연준 총재 Austan Goolsbee는 "오늘 예상 외로 높은 9월 인플레이 보고서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. 연준이 물가 압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."고 말했다.
- 그는 지난 12개월부터 18개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레이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으며, 일자리 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 언저리 수준까지 둔화되었다고 강조했다.
- 한편, 이번 물가 지표 발표로 인해 연준이 향후 수개월간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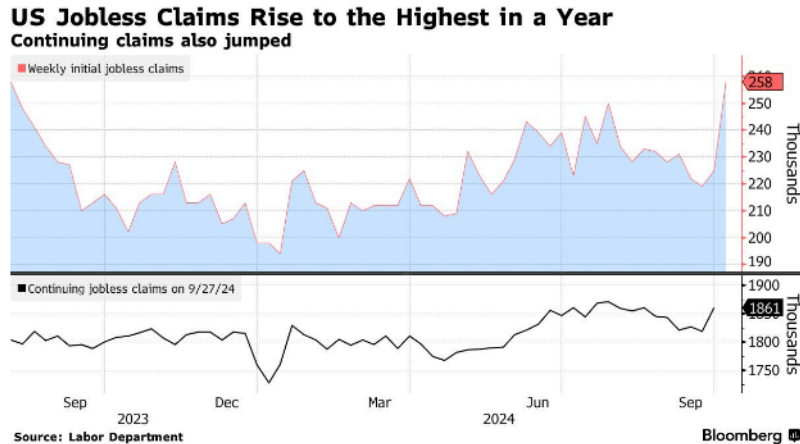
## Bloomberg: US Jobless Claims Jump to a Year High, Partly Boosted by Helene

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간 최고치 상승...허리케인 Helene 탓도

-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 1년간 최고치에 달했다. 미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허리케인 Helene의 여파를 받은 주들도 청구 건

수가 상승했다.

- 10월 5일 끝나는 주의 신규 청구 건수가 3만3천건 늘어난 25만8천건을 기록해 지난 2023년 8월 이래 가장 높았다.
- 전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숫자를 측정하는 총 청구 건수는 186만건으로 상승했다.



Bloomberg 기사

**WSJ: Fed Minutes Reveal Divide Over Size of September Rate Cut**  
**9월 연준 의사록, ‘금리 인하 폭으로 의견차 보여’**

- 9월 연준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금리 인하 폭을 두고 참석자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 대부분은 0.5% 인하를 선호한 반면, 일부는 0.25%를 선호했다. 결국 0.5% 인하 폭으로 결정되었다.
- 9월 FOMC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렸는데 참석자 12명 중 유일하게 이사인 Michelle Bowman가 0.25% 인하 폭을 주장했다.
-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7월 말 연준 회의에서 0.25% 인하는 것이 ‘그럴듯한 근거’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.
- 연준 관리들이 모두 동의한 점은 9월 회의의 큰 폭 인하 결정이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나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.

WSJ 기사

[미국 대선]

**Bloomberg: Trump Vows to Eliminate Income Taxes on Americans Living Abroad**  
**트럼프, ‘해외 거주 미국인에 소득세 철폐’ 약속**

-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번 캠페인의 세금 관련 최근 공약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말했다.
-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IRS에 세금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, 거주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일부 미 시민권자는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트럼프는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이중 관세 철폐를 지지한다고, '우리 모두 함께 아메리카 퍼스트, 유권자 등록을 하세요. 공화당에 투표하세요' 캠페인에서 강조했다.
- 그의 제안은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현재 해외 거주 미국인은 국무부 추산에 의하면 9백만 명이다.

Bloomberg 기사

[뉴욕시]

**Bloomberg: NYC Apartment Renters Get a Break But Bargains Remain Elusive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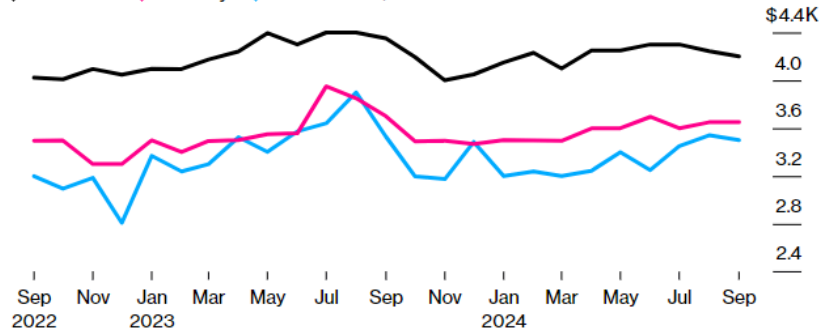
**뉴욕시 아파트 임대료, 천천히 내린다**

-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맨해튼의 신규 임대료 중간값은 작년보다 3.4% 줄어든 4천2백불로 나타났다. 퀸즈와 브루클린 임대료도 떨어졌다.
- 지난 수개월간 맨해튼 임대료가 점차 떨어졌지만, 임대료 중간치는 작년 여름에 최고치를 보였던 금액에서 겨우 2백불 낮은 수준이다.
-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 9월보다 20% 이상 비싼 상황이다.

**NYC Apartment Rents Continue Easing**

Manhattan median is \$200 less than the all-time high reached last year

Manhattan Brooklyn Northwest Queens



Source: Miller Samuel Inc. and Douglas Elliman Real Estate

Bloomberg 기사

**[미국 생활]****Bloomberg: 'Dangerous and Destructive' Hurricane Milton Makes Landfall in Florida****허리케인 '밀턴' 플로리다 상륙...심각한 피해 3등급**

속보: 최소 4명 이상 사망... 3백만 가구 및 기업체 정전 사태

-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 Siesta Key 근처에 상륙했다. 상륙 90분 후 밀턴은 Sarasota 북동쪽 약 20마일(30km) 떨어진 곳에 중심을 잡았다. 미국 국립기상청은 밀턴 경로 내에 있는 2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.
- 미국 기상청은 “위험하고 파괴적이다. 허리케인 주변, 특히 허리케인의 눈 남쪽에는 최대 15피트의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러면 해안가를 따라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. 플로리다 중부 지역에 이틀 동안 300~40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.”고 말했다.
- 한편, 밀턴은 대서양을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다가 기후 전선에 흡수되거나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. 영국 정부는 “허리케인 밀턴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. 플로리다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모든 영국 국민은 해외, 연방 및 개발 사무소(Foreign,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)의 여행 권고와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.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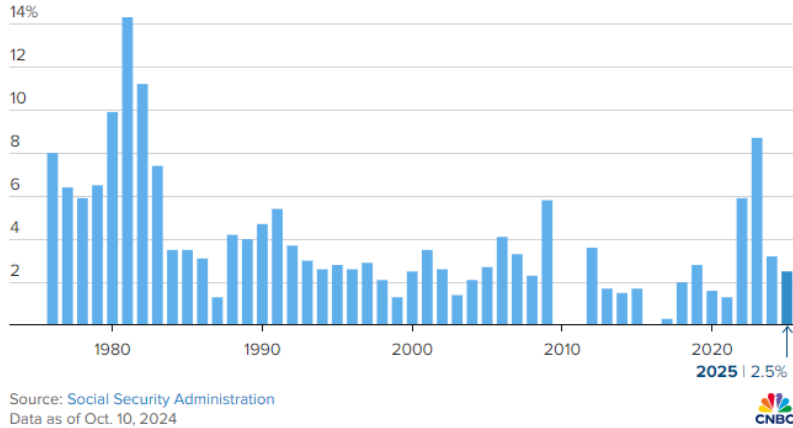
Bloomberg 기사

**CNBC: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nnounces 2.5% cost-of-living adjustment for 2025****내년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, 2.5% 오른다**

- 오늘 목요일 발표된 연방사회보장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받게 되는 은퇴자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는 2.5% 인상될 예정이다. 은퇴자 숫자는 7천2백50만 명이다.
- 내년 1월부터 인상되는데 한 달에 평균 50불 상승하는 셈이다.
- 이 같은 인상 비율은 인플레이가 둔화되면서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낮은 폭은 인상률이다.

**Social Security cost-of-living adjustments**

Annual | 1976–2025



CNBC 기사

[글로벌 경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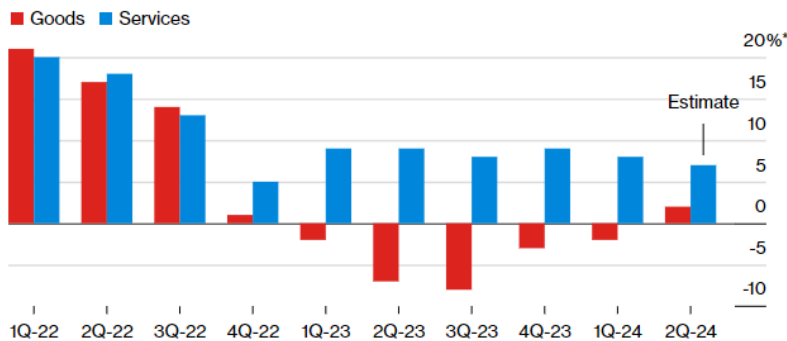
**Bloomberg: WTO Says Outlook for Goods Trade Is Clouding Amid Mounting Risks**

**WTO “리스크 증가로 상품 무역 전망 불확실해”**

- WTO가 지역 분쟁 등 여러가지 리스크 증가로 인한 경제 활동 약화와 운송 차질 때문에 2025년 세계 상품 무역이 예상보다 천천히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. 총 상품 교역량은 내년 3% 증가해, 5개월 전 3.3% 증가 예상치 보단 낮을 것으로 보인다. 올해 성장률은 2.7%로 수정됐다.
- WTO는 목요일 보고서에서 “지역 분쟁, 지정학적 긴장,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망이 좋지 않다. 중동 지역 분쟁이 고조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.”고 밝혔다.
- 또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무역 성장 속도가 다르다고 말했다. WTO는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다. 미국은 제조업은 약세지만 서비스 부문은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올해 아시아 수출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해 최대 7.4%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가장 빠르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중동으로, 9% 증가가 예상된다.

### A Divergence Between Global Services and Merchandise Trade

Value of commercial services is growing much faster than goods trade



Source: World Trade Organization  
Note: \*Year-on-year % change, in US\$ values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NYT: Amazon Could Be Forced to Treat Drivers as Employees 아마존은 배달 기사를 직원으로 대우해야 할 수도

-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과 빠른 배송으로 유명하다. 하지만 그 뒤엔 근무 조건에 대한 배달 기사들의 불만이 있다. 최근 연방 노동 판결로 배송 네트워크에서 노조 결성이 가능해졌고, 이는 아마존의 사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.
- 아마존 배달 기사들은 대부분 직접 고용되지 않고 배송 서비스 파트너라고 불리는 제3자 물류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. 최근에 아마존은 캘리포니아 Palmdale에서 한 배송 파트너와 계약을 해지했다. 배달 기사들이 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
- 전미노동관계위원회(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)의 한 지역 책임자는 Palmdale 사건에서 아마존은 배달 기사들의 공동 고용주이므로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Palmdale 사건은 3월 행정법 판사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.

NYT 기사

#### CNBC: Amazon tests adding robot warehouses to Whole Foods so shoppers can pick up other orders at checkout 아마존, Whole Foods에서 로봇 창고 추가 테스트 실시

- 아마존은 수요일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Whole Foods에 미니 창고를 추가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 이 시설이 운영되면, 고객들은 Whole Foods를 둘러보면서 아마존의 웹사이트와 아마존 프레스의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. 그리고 결제할 때 매장 픽업이 가능하다.

- 아마존의 제품 및 기술팀을 이끄는 Ananda Varadarajan은 로봇이 상품을 운반하고 고객들이 픽업할 수 있도록 가방에 넣는 자동화 창고 시설의 모형을 발표했다. 이를 통해 Whole Foods에는 없는 상품이어도 아마존의 방대한 온라인 상품 카탈로그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.
- 아마존은 고객들이 다른 식료품점을 추가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. 시장 조사 기관 Drive Research의 4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비용 절감, 다양한 제품 쇼핑, 매장별 프로모션 활용을 위해 일주일에 두 개의 식료품점을 이용한다.

#### CNBC 기사

### **Bloomberg: Samsung Backs Scholarly AI Bot Serving Students and Academics**

#### **삼성, 대학생들을 위한 학술용 AI 지원**

- 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AI 검색 엔진 Liner는 Intervest, Atinum Investment, 삼성 벤처 등 투자자로부터 2천9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.
- 서울에 본사를 둔 Liner는 빠르게 성장 중인 AI 스타트업으로 US Berkeley, Texas A&M, Southern California 대학 등에서 1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.
- Liner는 ChatGPT 같은 일반 AI 서비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. 학술 논문, 정부 데이터베이스, 과학 저널 및 출판물처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검색 범위를 좁혔다.

#### Bloomberg 기사

### **WSJ: McDonald's Is Bringing Chicken to the Big Mac**

#### **맥도날드, 빅맥에 치킨 출시**

- 맥도날드가 목요일 치킨 빅맥을 출시한다. 기존 빅맥에 소고기 패티 대신 치킨 튀김 두 개를 넣고 양파를 빼 메뉴다. 맥도날드 미국 체인점 메뉴 담당 수석 매니저 Wayne Kuhl은 치킨 빅맥은 팬들의 의견과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.
-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미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급증한 반면, 소고기 소비량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. 맥도날드 미국 사장 Joe Erlinger은 지난 6월 월스트리트 글로벌 푸드 포럼에서 맥도날드는 이제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치킨 빅맥은 일부 지점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판매한다.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다. 오리지널 빅맥도 계속 판매된다.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 Chris



Kempczinski는 일반 빅맥에서 느낄 수 없는 바삭함을 치킨 빅맥에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**샌프란 연은 데일리 "금리인하 이어갈 것...연내 두 번 혹은 한번"  
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"9월 빅컷은 신중한 결정"**

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(연은) 총재는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금리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

데일리 총재는 9일(현지시간) 보이시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"내 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올해 두 차례, 혹은 한 차례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